

## 강북구 148마을의 건강주민운동으로서 발전가능요인

홍종원<sup>1)</sup>, 김준형<sup>1)</sup>, 이순희<sup>2)</sup>, 김남준<sup>1)</sup>, 박웅섭<sup>1)</sup>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sup>1)</sup>,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보건 및 복지연구센터<sup>2)</sup>

### Success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Community Organizing in: 148 Village, Gangbuk-gu, Seoul

Jong-Won Hong<sup>1)</sup>, Joon-Hyeong Kim<sup>1)</sup>, Shun-Hee Lee<sup>2)</sup>, Nam-Jun Kim<sup>1)</sup>, Woong-Sub Park<sup>1)</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sup>1)</sup>, Community Health and Welfare Research Center,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sup>2)</sup>*

#### =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uccess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community organizing in regard to its perspective in: 148 village, Gangbuk-gu, Seoul.

**Methods:** We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using in-depth interviews from February 2020 to December 2021. Seven operators who had worked for the project were enrolled in this study.

**Results:** In this study, the success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community organizing were analyzed as follows; building community relationships across generations; starting from interests of the community; belief that working together can solve the issues; external support based on spontaneity of community; project based on publicness; discovering community-based leadership.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health community organizing following the principle of community organizing can sustain and develop itself without external support. In order to develop into resident-oriented health community organizing,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uccess factors derived from this study.

**Key words:** Community participation, Empowerment, Health promotion, Social capital

---

\* Received September 14, 2022; Revised September 20, 2022; Accepted September 26, 2022.

\* Corresponding author: 김준형, 강원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Joon Hyeong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Bumil-ro 597-24, Gangneung-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Tel: +82-33-649-7460, Fax: +82-33-641-1074, E-mail: kimjh4174@gmail.com

\* 이 연구는 홍종원이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발전시킨 것임

## 서론

세계보건기구는 건강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으로 일차보건의료를 제시하였다[1].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상황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일차보건의료의 핵심전략으로 다뤄진다[2]. 이러한 지역사회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주민의 조직화된 힘으로 지역사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민조직화 원리를 적용한 것이 바로 건강주민운동이다[3,4].

건강주민운동은 주민조직화를 건강영역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고 건강형평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5-8]. 건강주민운동에 대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강북구 건강주민운동도 2012년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시작하였으며 건강설문조사 수행, 건강카페 개소, 여러 가지 건강 소모임이 진행되었다. Hong 등[9]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 건강증진사업과는 다르게 주민조직화 전략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활동가가 보건소, 전문가, 주민의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었지만, 준비 기간 부족, 불분명한 정체성, 사업성과 예측의 어려움 등 시범사업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3년 정부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건강카페 대신 마을사랑방 운영이 시작되었고, 건강소모임은 마을축제, 청소년 활동, 청년 모임 등의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Hong 등[4]은 이렇게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주민리더의 역량 강화, 주민만나기를 통한 운동주체의 확산, 주민필요중심의 관점, 민관학 네트워크의 형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주민의

자발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민지도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2018년부터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단순히 운동의 지속을 넘어 주민주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해 나아갔다.

이에 이 연구는 강북구 건강주민운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건강주민운동이 발전해 나아간 과정과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고 발전가능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강북구 148번지 일대에서 일어난 건강주민운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건강주민운동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며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민 리더 3명, 청년활동가 3명, 체육학 전공 대학교수 1명으로 총 7명으로 하였다.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주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진행했다. 심층면접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사업 추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은 활동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인 2020년 2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면담은 문헌고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작성한 주요 질문 항목에 따라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의 조사내용은 건강주민운동의 진행 과정, 주민주도성, 건강주민운동의 발전가능요인 등이다. 질문내용은 모든 면접은 심층면접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활동으로 참여하셨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활동하면서 기

역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시오.”, “건강주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시오.”,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되었던 시기와 현재 시기의 활동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주시시오.”, “건강주민운동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148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건강주민운동에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현장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의 변화양상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현장의 맥락에서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3) 연구도구

심층면접 대상자들에게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기 위한 면접지침을 작성하였다. 면접지침은 연구자가 정보 제공자로부터 비슷한 종류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을 허락받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면접지침 작성 Anselm과 Juliet[10]의 면담지침을 참고하였다. 또 면접 시에 연구자가 수월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탐색적인 질문목록을 미리 작성하였다. 질문목록은 사전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기록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관찰하며 기록한 메모 등을 참고하였다. 심층면접 자료 수집을 할 때 고려할 점은 Benjamin과 William[11]이 제시한 다섯 가지 관점을 숙지하였다. 이론적 발달에 의한 자료의 생성, 자료 수집의 융통성과 연속성, 새로운 자료가 생성하지 않을 때까지 자료 수집을 계속하기 그리고 부정적이고 이탈된 경우 찾기를 따랐다.

### 4) 자료분석 방법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문헌고찰, 심층면담, 현장 연구로 수집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된 자료 안에서 특징적 의미와 주제 그리고 규칙을 찾고 해석해내는 과정으로 Michael과 Matthew[12]의 자료 분석 방법을 따

랐다. Michael과 Matthew는 질적 자료 분석 시에 자료 축약 작업, 자료 배치 작업, 자료에서 의미 도출하는 작업 그리고 해석하는 작업 등 이 세 가지를 최소한 거쳐야 할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첫째,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 연구목적 그리고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맥락에 알맞은 핵심 단어와 문장을 추출한 후에 동일 범주별로 자료를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치된 자료에서 보이는 특징들의 맥락적 의미를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Yvonna와 Egon(1985)이 제안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 준거를 지키기 위해 동료 연구자들의 조언과 지적을 참고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분야나 학문 배경이 유사한 대학교수와 동료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구하였다.

## 연구결과

### 1. 148마을 건강주민운동의 경과

#### 1) 정부 주도 사업 과정

(2012년 3월 ~ 2012년 12월)

148마을 건강주민운동의 정부 주도 사업 명칭은 서울시 건강친화마을 만들기였다. 사업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48번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강북구의 건강 형평성 지표가 서울시 내 다른 지역의 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낮고, 그중 번2동은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148번지는 주민 이동률이 낮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강북구 보건소, 오동근린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의 자원과 인접해 있다. 강북구 건강친화마을 사업의 추진단으로는 강북구에 위치한 돌산공동체, 두루두루 배움터 그리고 강북구 보건소로 구성되었다. 사업의 목표는 “지역주민·활동가·보건소의 협치를 통한 마을 내 주민 조직체의 확립, 마을의 건강 형평성 및 건강 생활 실천도 향상, 주민

스스로 경제공동체 운영”이었고, 사업의 비전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였다. 사업 추진 전략으로 ‘주민조직화’를 활용했다. 주민조직화(Community Organizing)는 미국의 빈민 조직운동가 ‘술 알린스키(Saul D. Alinsky)’의 이론에 기반한 전략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과 지역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주민의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기존의 건강증진사업들과는 다른 전략인 주민조직화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활동가를 통하여 보건소, 전문가, 주민 등 사업 주체들 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하였고, 사업 정체성이 불분명하였으며, 사업 성과의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에서는 시범사업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하였다.

## 2) 정부 지원 중단 이후의 지속 과정

(2013년 1월 ~ 2017년 11월)

강북구 번2동 148번지에서 진행된 서울시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조기 종결되었다. 예정된 사업 기간은 3년이었으나 1년 만에 종료되었고 사업의 목적과 주체가 변경되면서 복지마을사업이 되었다. 마을 조사단, 방범단, 소모임 등의 주민 활동은 사라지고 사랑방도 문을 닫았다. 그 후,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 중 일부가 2013년 주민조직 ‘오패산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반찬가게 운영, 생필품 공동구매 등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이후, ‘오패산협동조합’은 다른 주민조직과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마을 꿈터’, 꽃을 사랑하고 꽃길을 가꾸는 모임 ‘오동 우정회’, 여기에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까지 결합하여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수행하였다. 청년모임이 중심이 되어 월간 걷기 행사, 영화상영회, 인문학 강좌, 마을 축제를 개설하고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2014년 5월에는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마을 사랑방 ‘건강의 집’을 개소하였다. 건강의 집에서 주민 자조 모임, 문화 예술 활동, 정기회의 등 다양한 주민모임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도배 등 집수리를 해드리며 경로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건강 상담을 제공하였다. 주민 리더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청년과 청소년 등 새로운 건강주민운동의 주체가 발굴되었으며, 정부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 3) 정부 지원 중단 이후 발전 과정

(2017년 11월 ~ 2020년 12월)

이후 건강주민운동은 소모임 및 활동의 지속을 넘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사업의 목적과 목표, 활동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하였다(Table 1).

### (1) 마을 사랑방 건강의집

관 주도의 정부 사업 이후부터 계속해서 건강주민운동의 중심은 마을 사랑방 ‘건강의집’이었다. 다양한 주민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소모임을 하고 여러 활동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건강의집은 거점 역할을 하였다. 청년들과 주민들의 모임이 다양해지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오패산 청년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을 짓고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며 각자의 활동을 지속해 나아갔다. 주민과 청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공간이 되었다. 건강의집은 주민들의 놀이터, 청년들의 놀이 공간에 이어 청년들의 주거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영화상영, 학부모 모임, 우쿨렐레 연주 모임, 청년 게스트하우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1. Periodic characteristics of health community organizing in: 148 village, Gangbuk-gu, Seoul

Classification	Initiation period by government support	Maintenance period after discontinuation of government support	Development period based on residents-driven project
	2012.03-2012.12	2013.01-2017.11	2017.12-2020.12
Objectives	Lifestyle changes through the health community organizing project	Residents-oriented health community organizing	Community organizing based on lifestyle improvement
Go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storation of community</li> <li>Health inequality <i>reduction</i></li> <li>Improvement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tinuous gathering of residents</li> <li>Discovery and evolution of subjects</li> <li>Voluntary local activity</li> <li>Improvement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sultation long-term village development process</li> <li>Achievement vision of village</li> </ul>
Man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id full-time activists: 3 people</li> <li>Paid part-time activists: 2 peopl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id part-time activists : 1 person (Temporary employment during public offering project from local government)</li> <li>Unpaid activists (2 young persons from the commun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olunteer activists (community residents)</li> </ul>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unity health survey</li> <li>Health cafe operation</li> <li>Humanity course</li> <li>Small groups(yoga, barista, et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llage gathering place (Maeulsarangbang) opened</li> <li>Village festival and event (Sunday Park)</li> <li>Starting Adolescents activities</li> <li>Small groups(ukulele, movie, et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llage gathering place (Maeulsarangbang) continued</li> <li>Adolescents health promotion activities</li> <li>Youths' housing project</li> <li>Founding of regional regeneration social enterprises</li> <li>Seoul-City urban regeneration project</li> <li>Community center (Maeul hwallyeokso)</li> </ul>
Perform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iscovery of village gatherings through different approach from existing health promotion project</li> <li>Facilita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subjects by activists</li> <li>Approach consider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mpowered community leaders</li> <li>Discovery and evolution of new subjects (youths, adolescents etc)</li> <li>Persistence of residents' activities</li> <li>Residents-oriented health community organiz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ttempting residents-driven urban regeneration</li> <li>Community center (Maeul hwallyeokso) management independently</li> </ul>
Signific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first attempt at village community project of Seoul</li> <li>Community approach for health problem solving</li> <li>Providing ideas about design on the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ealth community organizing by voluntary residents</li> <li>Existing residents getting together with youths</li> <li>Possibility of bottom-up health promotion move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rsistence of residents-oriented community activities</li> <li>Urban regeneration movement seeking to create physical environment</li> </ul>

### (2) 청소년 건강증진 활동 일상연구소 말랑말랑

‘일상연구소 말랑말랑’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건강증진 활동은 강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기획되었다. 이 활동은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단순히 신체적인 접근보다는 문화 예술 및 공동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가 건강한 삶의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강사로 참여한 지역 청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주민과 관계를 맺어 갔다. 이러한 관계 맺기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과정이 되었다. 또한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문화 예술 활동, 신체활동, 공동체 활동을 덧붙였다. 삶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활동으로써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였다. 그 외에도 만들기, 요리, 운동, 지역사회 주민과의 만남과 같은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매년 활동을 거듭하며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의 관계성이 증진되었고 단순히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는 목표 이상의 성과물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활동이 이어져서 보건소와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 푸른촌 청소년 상담기관, 건강의집 청년활동가들, 주민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일상연구소 말랑말랑, 공부방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전달 및 교육강사 파견, 심리상담 등의 단일 프로그램들을 포괄하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건강울타리네트워크 건강살터네’라는 이름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협의체 이해관계자들간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도 이어졌다.

### (3) 청년 주택 사업

‘터무니 있는 집’은 2018년에 시작된 사회투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법인 의 시민출자형태의 청년주택 기금사업이다. 148건강주민운동을 함께한 청년 중 일부는 2016년부터

공동생활을 해왔다. 집이 없는 청년들의 자발적 공동체로 시작한 공동 주거가 재단을 만나면서 ‘터무니 있는 집’이 되었다. 한국의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터무니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땅에 무늬를 새긴다는 의미를 담아서 ‘터무니 있는 집’이 되었다. 시민출자기금으로 1호 집을 마련하고, 이어서 2호 집이 경기도 부천에, 3호 집은 LH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매입 임대 주택의 형태로 마련하였다. 입주한 청년들은 동네 청소를 하면서 주민과 어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 (4) 지역재생 사회적기업 로컬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청년 공동체 활동과 건강주민운동을 이어온 청년 주체들은 지역 자립 재생을 표방하면서 2018년 1월에 사회적기업 로컬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일상의 예술을 통하여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목표 아래 지역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아트’에 ‘리사이클링’을 합친 ‘아트사이클링’이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축제와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결합한 것으로, 지역의 쓰레기를 활용하는 지역축제였다. 그 외에 지역을 즐겁게 하는 활동으로 버스킹, 예술 공연을 하고 있다.

## 2. 건강주민운동 발전가능요인

### 1) 세대를 넘나든 주민 관계 형성

“집에 가게를 하다 보니 댁에 찾아가면 어르신들이 말을 많이 해주셨어.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나갈 땐 재료만 받고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친화마을 방법대로서 8시부터 일하고 마을 내에서 쓸 지역 화폐 사용 관련된 조사 한다고 30분 이상 어르신들과 얘기 나누게 되면서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주민리더1)

“청년들이랑 함께 하는 프로그램까지 가지 않아도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활력인거야. 뭘 하든 청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야지.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지 못 하더라도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고 그거

자체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보는 자체가 즐거워.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그 정도만 해도 행복해.”(주민리더2)

“그래서 내가 건강의집 가서 어울려요. 저렇게 젊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랑 놀아줄까? 나도 어디 가서 젊은 사람과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청년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아요. 그렇지. 이런 교류 공간들이 필요하지. 경로당 같은 곳에 가면 나이 많은 노인들만 앉아서 고스톱치고 있지요. 세대가 어울릴 수 있어서 좋죠.”(주민리더2)

강북구 건강마을운동은 특정 연령대만이 아닌 여러 세대에 걸쳐 관계를 형성하였다. 마을의 리더들은 청장년들은 물론 어르신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의 집’은 여러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아닌 건강의 집에 나와 젊은 활동가들과 건강주민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여러 세대에 걸친 관계 형성은 건강주민운동이 더 많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었다.

## 2) 주민의 이해관계에서 출발

“초반에 마을을 조사할 때 최고 우선순위를 여쭙보니 병원, 약국, 시장 등을 필요로 하시더라고. 대형마트는 큰돈을 가져가야 하는데, 구멍가게 같은 데는 돈 많이 안 가져가고 가볍게 사드릴 수 있잖아. 그런 데가 생기면 좋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될 수 있으면 마을에 큰 회관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고 진료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기 주변 땅값이 그리 비싸지 않잖아. 공기도 얼마나 좋아요.”(주민리더1)

“저희의 사례는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이유나 일과 관련된 불편한 점이 이유가 되어 자발적으로 같이 살게 된 경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공동 주거를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편승하여 같이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나름의 경제적 조건, 하는 일, 지역 풀뿌리시민운동과 같은 가치가 맞물려서 우연하면서 독특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어요.”(청년활동가1)

“저희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도 거기에 맞게 또 한편으로는 발전한다는 것이 규모나 그러한 발전이 아니라 나이나 생애주기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을 거기에 맞추어 가면서 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활들이 지속 가능할 거 같고”(청년활동가1)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전문가나 활동가의 의견이 아닌, 주민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시작하였다. 주민리더들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마을 활동을 시작하였다. 청년주택사업도 자신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민의 이해관계에 출발한 문제들은 주민들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이끌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은 주민운동을 생애주기에 맞춰 발전시킨다면 지속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 3)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혼자 있다면 돈을 모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함께 살면 비용이 절감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개인만의 공간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혼자 형성하고 있지만 가능성의 실마리가 생기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꿉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재미있게 운영하는 것을 상상해요. 사람들과 마주침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 같아요.”(청년활동가2)

“저는 앞으로 저희가 점차 성장해가면 좋겠어요. 왜냐면 집도 좁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차츰차츰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여러 집들이

모여서 일도 늘려가며 경제적 여유도 늘어나서 점진적으로 삶의 질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다발적인 공동체를 땀 그룹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런 영감이 되었으면 해요.”(청년활동가1)

“폐쇄적으로 소수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터전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어요.”(청년활동가1)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청년활동가들은 함께라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청년들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진 집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공동체로 발전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 4)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주민의 자발성

“마을 주민들의 활동이 이미 있었고 지역축제와 협조도 잘 되었죠. 처음의 생각했던 대로 마을의 활동이 이미 있었고 연결되었죠. 우리끼리 외파로 행사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결합이 되었죠. 다른 곳은 공원이예요. 놀이판을 벌이면 사람들이 저절로 하게 되었어요. 강북구는 찾아오셔야 했고, 주민들과 협업이 필수고 보건소와의 협업이 필수였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활동을 대학에서 뺏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을 협의해냈죠.”(대학교수)

“대학이 주민들과 함께했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죠. 주민들이 잘하는 부분을 외부인이 건들면 침략일 수도 있죠.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끼리 해야 하는지 대학의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조율을 해야 해요. 입장 일단을 찾아서 대학이 들어갔을 때 체계적인 전문성, 대학생들이 참여의 장점을 미리 검토를

해봐야죠. 대학이 빠져나갔을 때 공허함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대학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지요.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겹쳐서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수 있죠. 마을 안에 자체적인 활동으로 남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마을 기업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죠. 돈이 끊겨도 만들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들어야죠. 마을 공동체 활동도 끊길 수가 있으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 허무해지니까.”(대학교수)

강북구에는 대학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대학이나 보건소는 최대한 주민들의 활동을 견인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결합하였다. 주민들의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해 버린다면, 주민운동은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다. 대학은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였고, 가능한 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 서로 간의 신뢰와 협업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주민들에 의해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

#### 5)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란도란 얘기할 때, 가꿔진 꽃들을 보며 좋아하실 때, 또 이곳에서 마음의 치유를 하러 오신 분이 기뻐하실 때죠. 고시 시험 쳤다가 온 학생이 이곳 왔다 가서 시험에 붙었다고 다시 찾아오시는 등 사연도 많아요.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곳을 좋아하실 때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에서 행복을 찾고 지식을 많이 배워서 행복하겠지만, 제가 지금 일하면서 얻은 행복도 그들과의 행복의 가치와 같다고 생각해요.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을 숲길을 가꾸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무가 다 죽어 가는 걸 아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 지금은 너무



넓어서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옛날엔 혼자 했는데 요즘에는 구청에서 사람 몇 명 지원해주셔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주민리더3)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일을 하려고 했던 일은 아니에요.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데 저희는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며 우리 일을 찾아보고자 했어요. 운 좋게 마을 축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청년 주택 등과 같은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활동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었고 또 공익이 부합하는 일이었어요. 개인의 안위만을 돌보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고 일하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삶이 지역 사회를 돌보는 일이 되어 뜻깊죠.”(청년활동가2)

주민리더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금전적인 이익이 없어도 꽃길을 찾아온 이들의 행복을 위해 꽃길을 가꾸었다. 또한 청년들은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들의 삶 자체를 지역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주민리더와 청년들은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면서 보람을 느꼈고, 이는 공공성을 가진 다른 활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 6) 지역에 기반한 주민 지도력의 발굴

“마을에는 분명히 오래전부터 활동해오고 주민들을 살피온 기존 리더가 있어요. 148마을은 오랫동안 통장 활동을 해온 리더와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만나오면서 리더로 역할 하는 분들이 있었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필요시 협력하기도 하는 관계입니다. 부녀회를 이끄는 리더분도 계셨어요. 또 소상공인으로 주민들을 만나 리더 역할을 하는 분도 있었구요. 여러 리더분들이 만나는 주민들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매끄럽게 협력되지 않기도 했지만 서로 각각 주민들을 대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었습시다.”(청년활동가3)

“마을 공동체는 결코 한 가지 이념이나 생각 소수 혹은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종교,

사상, 정치, 가치관, 생활 등이 얽힌 복잡하고 다양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리더도 여러 사람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냅니다. 결코 한목소리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각 리더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만나가는 것이 마을의 화합에 중요합니다.”(청년활동가3)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리더는 마을 외부의 전문가가 아닌 마을에서 발굴되었다. 또한 건강주민운동 이전부터 각자 자신의 조직에 속한 주민들을 만나며 주민들을 대표해온 리더들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지역에는 소수의 이념이나 리더가 아닌 매우 다양한 무리와 리더가 있다. 건강주민운동의 활동가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다양한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한목소리로 의견을 모아가기보다는 이렇게 발굴된 리더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였고 그들을 지도력으로 세우면서 건강주민운동은 확대되었다.

## 고 찰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과 질적 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주민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마을 사랑방 건강의집을 거점으로 청년들과 중장년층, 어르신까지 교류하고 관계를 만들어갔다.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면서 관계의 폭이 확장되고 건강주민운동에 함께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많아질수록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관계를 통하여 정서적인 교감과 유대감이 형성됨과 동시에 네트워크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가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13-15]. 이는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으로 연결된다.

둘째, 주민의 공동된 이해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민들의 각자의 이해관계는 주민들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며, 개인의 이해관계 중 많은 부분은 결국 지역의 이해관계와 연결된다[3]. 지역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동된 문제의식과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공동체가 형성된다[16]. 강북구 번동 주민들도 자신들의 욕구에서 출발하여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건강주민운동을 점차 전개해 나아갔다.

셋째,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헌신이나 의지를 통해 구성원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거라는 공유된 믿음이다[17]. 강북구 건강주민운동 청년들에게는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문제에 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이웃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역량강화를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18].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19].

넷째,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자발성이 건강주민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한다.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외부지원이 선부르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주민운동을 퇴보시키게 된다.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대부분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관계나 주민운동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참여한 주민들의 숫자나 외관적인 변화등 양적인 성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20]. 이와 반대로 강북구는 건강주민운동 주민의 주체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지원을 제공하였다. 방아골 복지관의 사례에서도 보면, 프로그램을 주민 중심의 관점으로 운영하고자 성찰하는 부분이 주민공동체강화의 성공적인 요인이었다[21]. 이처럼 건강주민운동에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화하고 주민 스스로 역량개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8].

다섯째,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지역사회 정체성이 높은 단체들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사회적 영향력 또는 조직의 외연이 크다는 면에서 지역사회 연결망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22]. 148번지 건강주민운동은 공공성을 띤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웃을 만나 관계를 쌓고 보람을 느끼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23].

여섯째, 지역 기반의 주민 지도력을 발굴해야 한다.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은 주민만나기를 통해 기존의 지역 조직의 리더들과 새로이 지역에서 찾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기반의 리더는 외부의 전문가에 비하여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전문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보다 문제에 대하여 절실하지 않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건강주민운동이 지속되려면 같은 처지에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지도력을 발굴해야 하고 그들이 민주적인 주민 리더로 성장해야 한다[3].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건강주민운동을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건강주민운동이 정부지원과 함께한 전개 과정, 정부 지원 중단 이후의 지속 과정, 이후의 발전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 연구는 건강주민운동 단계별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둘째, 활동가로서 건강주민운동에 직접 참여하며 가까이서 관찰한 내용을 연구했기에 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건강주민운동에 대한 질적연구로, 양적 연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발전가능요인에 대한 맥락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비 지원없이 일부 주민리더, 청년활동가, 대학교수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기에 건강주민운동의 다양한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내부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며 연구대상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중립적이지 못한 시각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셋째, 도시, 수도권,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특성을 지닌 강북구의 번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에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학계와 공동연구를 통한 규모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요 약

이 연구는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건강주민운동이 발전해 나아간 과정과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의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고 발전가능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강북구 148번지에서 일어난 건강주민운동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며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던 참여자들이다. 건강주민운동의 진행과정, 주민주도성, 건강주민운동의 발전가능요인 등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강북구 건강주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를 넘나든 주민 관계가 형성되었다. 둘째, 주민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였다. 셋째,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넷째, 주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둔 외부지원이 있었다. 다섯째, 공공성에 기반하여 활동하였다. 여섯째, 지역에 기반한 주민 지도력을 발굴하였다.

외부의 지원 없이 주조직화 원칙을 따르는 건강주민운동은 지속 및 발전이 가능하며, 주민 중심의 건강주민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이 연구에서 도출한 성공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ation of Alma-Ata. No. WHO/EURO: 1978-3938-43697-61471, 1978.
2.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eoul, Gyeochuk munwhasa pub, 2021, pp.1081-1087

3. Korea community organization network for education & training. Community organizing methodology. Seoul, Jjgfound, 2010, pp.16-29
4. Hong JW, Song TH, Kim NJ, Kim SA, Park WS. Sustainable factors of health community organization after discontinued government support in 148 village, Gangbuk-gu. *J Crit Soc Pol* 2019;(65):237-266. (Korean)
5. 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Geneva, WHO press, 2008.
6. Laverack G. Health promotion practice: power and empowerment.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004, pp.1-176.
7. Solar O, Irwin A. A Conceptual Framework for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Geneva, WHO Document Production Services 2010.
8. Kim SR. Participation as empowerment in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 : In-depth case study of Health Saemaetul program.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 (Korean)
9. Hong JW, Park WS, Kim SA, Kim NJ.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of the health community organization project in 148 village, Gangbuk-gu.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17;42(3):155-167 (Korean)
10. Anselm S, Juliet MC. Grounded theory in practice.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7, pp.199-250
11. Benjamin FC, William LM. Doing qualitative research.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9, pp.33-46
12. Michael H, Matthew BM. The qualitative researcher's companion.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2 pp.393-398
13. Jung MS, Cho BH. The influence of community capacity in health status. *Health Soc Sci* 2007;22(0):153-182 (Korean)

14. Moon KJ, Kim SY, Chang SJ. A study of determinants on the sense of local community by multi-level analysis. *J Reg Stud* 2015;23(1):115-142. (Korean)
15. Jung WJ. A study on the method for promoting the community of national rental housing : focus on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al sense between the habitat housing and the national rental housing. Seoul, University of Seoul, 2008. (Korean)
16. Yeo KH. A study on the growth of community through maeul-mandeulgi: Focused on the jangsu village, Seongbuk-gu. *J Korean Urban Manag Assoc* 2013;26(1):53-87. (Korean)
17. McMillan DW, Chavis DM.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 Community Psychol* 1986;14(1):6-23.
18. Chavis DM, Wandersman A.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Massachusetts, Springer, 2002, pp. 265-292.
19. Lee MS, Kang MJ. The impact of sense of community and concern for health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health promotion in a medium-sized Korean city. *Korean J Health Educ Promot* 2020;37(5):37-50. (Korean)
20. Lim WT. Instrumentalization of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zation of the social. *Korean Soc Social Theory* 2010;17:85-120. (Korean)
21. Shin MH. Is it possible for social welfare centers to engage in community organizing movement? *Korean Stud Q* 2012;35(2):69-99. (Korean)
22. Smith CE, Freedman AE. Voluntary associations: perspectives on the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23. Kim SH. Adolescents' volunteering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A panel data analysis using two-way fixed effects models. *Stud on Korean Youth* 2015;26(2):237-259. (Korean)